

귀신과 괴물: 삼국유사의 비현실성과 이적

안드레아 데 베네디치스
나폴리대학교 동양학대학 한국학과

본 논문은, 역사서의 성격을 띄고 있으나 설화와 미신 속에서 자주 머물며 우리로 하여금 이적과 비이성의 궤적을 탐색해 볼 수 있게 해주는 삼국유사의 일부 구절을 분석함으로써, 이적, 귀신, 괴물에 대해 고대 한국인이 지녔던 시각을 고찰하고자 한다. 삼국유사는 불교승려에 의해 편찬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대의 신앙과 미신을 모든 면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위의 시각과 관련된 일부 양상을 재구성하는데 필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본 작업을 전개하는 동안, 고대 한국에서 일어났던 몇몇 현상들의 맥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고대 지중해, 다시 말해 고대그리스의 유사한 개념 일부를 언급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두 문화권 사이에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을 거라는 가설이 가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중국 문화와의 통상적인 평행적 비교를 피하기 위해서이다. 중국 문화와의 비교가 어떤 경우에는 한국 문화의 면모를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 문화를 왜곡시키거나 한·중문화의 변종에 불과하다는 해석으로 의미를 축소시킬 수 있는 더 큰 위험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적

삼국유사는 역사서이기에 앞서 이적들의 모음이다. 이탈리아어로 ‘이적prodigio’은 라틴어 ‘prodigium’에서 파생되는데, 이것은 초자연적 현상과 비인격적인 사건을 가리킨다. 후자가 뒤에 나올, 개별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monstrum’(괴물)과의 차이이다. 마법이나 비이성적인 것에 대한

고대인의 사랑은 중국의 초기 역사서에서도 나타나며, 고전인 산해경과 같이 명백하게 그러한 이야기만을 다룬 책도 있었다. 물론 산해경은 삼국유사를 편찬하던 시대에 한반도에도 잘 알려져 있었다. 승려 일연 자신도 책의 서문에서, 자신이 지금 기록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의 기이함을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이 기록할 이야기들이 중국 역사서에 쓰인 것보다 절대로 덜 기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고 본즉 삼국의 시조가 모두 신비스러운 기적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것도 무엇이 그리 괴이하다고 하라! 이것이 신비로운 이야기를 이 책의 첫머리에 실게 된 이유인바, 그 의도인즉 바로 여기에 있음이다.”

다른 한편, 재구성된 역사가 ‘이적들로 전염’되는 사실은 서양의 역사편찬 전통에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면 신비한 이야기들을 언급하고 있는 플리니우스의 박물지Historia Naturalis나 솔리누스의 Collectanea rerum memorabilium등이 권위 있는 선례이다. 우리는 삼국유사의 첫 장에서부터 ‘이적’의 의미론적 영역과 마주치게 되는데, 그것은 ‘괴이하다’는 의미의 괴괴, ‘귀신’의 신神, ‘기이한 이야기’라는 뜻의 기이異 등의 단어가 연달아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실상 이 용어들은 작품 전체에 걸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라이트모티프lightmotif이다. 삼국유사의 텍스트가, 바로 이적에 바탕을 두고 있는 신화와 전설에 주로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 속에 살고 있는 이들(신, 영웅, 신비한 존재)은 인간에 닿아 있으나 인간을 뛰어 넘는다. 이들은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태어나며, 평범하지 않은 일들을 이룬다. 비상한 능력과 힘을 가졌으며 그로 인해 다른 이들의 미움을 받는다. 탄생은 이미 그 자체로 설명할 수 없는 충격적인 현상인데, 영웅들의 기적적인 탄생은 그것을 월등히 뛰어넘으며 – 예를 들어 알에서 태어나고 동물들의 비호를 받는다 – 비범하고 설명이 불가한 사건들이 그 뒤를 잇는다. 혼성 생물이거나 괴이한 모습을 지닌 괴물이 탄생할 수도 있다. 또 비정상적인 탄생으로 인해 의심스런 시선이나 더 나아가 경악과 두려움의 시선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단순히 논란 시선만을 받기도 한다.

“인덕3년 병인 3월10일에 어떤 사람의 집 계집종이 있어 이름이 길인데 한 태에 아들 셋을 낳았다. 총장3년 경오 정월 7일에 한기부의 아간 성산의 계집종이 한 태에 아이 넷을 낳았는데 딸이 하나요, 아들이 셋이었는데 나라에서는 곡식 2백석을 상으로 주었다.” (삼국유사, 제 2권 기이)

고대인들은 자신들의 욕망, 두려움, 혹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현상의 원인에 형체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 때마다 우주의 알려지지 않은 공간들을 온갖 종류의 이적들로 가득한 전경으로 채웠다. 그와 동시에, 초자연적 현상을 영웅의 역할, 혹은 왕조나 가문의 우월성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용했다. 예를 들어 신라를 건국한 박혁거세의 탄생에 얽힌 이적도 마찬가지인데, 아래와 같이 묘사되고 있다.

“이 때에야 모두 높은 데 올라가 남쪽을 바라보니 양산 밑 나정 우물 곁에 이상한 기운이 번 개처럼 땅에 드리우더니 웬 흰 말 한 마리가 무릎을 꿇고 절하는 시늉을 하고 있었다. 조금 이따가 거기를 살펴보니 보랏빛 알 한 개가 있고 말은 사람을 보자 울음소리를 길게 뽑으면서 하느님으로 올랐다. 그 알을 쪼개니 형용이 단정하고 아름다운 사내아가 있었다. 놀랍고도 이상하여 아이를 동천에서 목욕을 시키매 몸에는 광채가 나고 새와 짐승들이 모조리 춤을 추며 천지가 진동하고 해와 달이 맑게 밝았다. 따라서 이름을 혁거세왕이라 하고...”. (삼국유사, 제 1 기이)

고구려를 창건한 주몽의 탄생도 마찬가지다.

“이래서 태기가 있어 알 한 개를 낳으니 크기가 다섯되들이는 되었다. 왕이 이것을 버려 개와 돼지에게 주니 모두 먹지 않았다. 다시 이것을 길바닥에 버렸더니 소와 말이 피하여 갔다. 이것을 들에 버렸더니 새와 짐승이 덮어 주었다. 왕이 이것을 쪼개려 하여도 깨뜨릴 수가 없어 그만 그 어미에게 돌려 주었다. 어미는 이것을 물건으로 싸서 따뜻한 데 두었더니 아이 하나가 껍질을 깨고서 나왔는데 골격이나 외양이 영특하고 신기롭게 생겼다. 나이 일곱 살이 되자 큰 재락을 보였고 화살을 만들어 백 번을 쏘면 백 번 다 맞았다. 그 때 풍속에 활 잘 쏘는 사람을 가리켜 주몽이라 했으므로, 그의 이름을 주몽이라 했다.” (삼국유사, 1권 기이)

이적은 대상이 왕이라도 그의 삶 어떤 순간에든 불쑥 개입할 수 있었고, 그것은 평범한 사람에도 마찬가지였다. 이적은 갈 길을 밝혀주기도 하고 온갖 종류의 장애물로 앞 길을 막기도 한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신비한 사건이기도 하고 나쁜 태도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며, 행운이나 불운의 징조이기도 했다. 그것은 왕의 탄생이나 죽음, 왕국의 건국이나 폐망과 같이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동반했다.

“현경4년 기미(659)에 백제의 오회사에 있는 크고 붉은 말이 밤낮 여섯 시간 동안 절들이

공덕을 닦았으며 2월에는 여우떼가 의자의 궁중에 들어갔는데 흰 여우 한 마리가 좌평의 책상 위에 앉았었다. 4월에는 태자궁의 닭담이 작은 참새와 홀레를 붙였으며 5월에는 사비 강둑에 큰 고기가 나와 죽었는데 길이가 서 발이요, 이것을 먹는 사람은 다 죽었다. 9월에는 대궐 안에 있는 회나무가 사람처럼 울었고 밤에는 대궐 남쪽 길 위에서 귀신이 울었다.” (삼국유사, 제1 기이)

이적은 지극히 다양한 매개체들을 통해서 나타난다. 해성, 구름, 우뢰와 같은 천문 요소들이 동반되기도 한다. “해가 돌이 나란히 나타나서 열흘이 되도록 그대로 있었다.” (삼국유사, 제7 감통). 하지만 그보다는 인간 -노인, 혹은 승려를 통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을 통해서 나타나거나 곰, 까마귀, 말, 여우, 쥐, 개구리 등의 동물을 통해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 이들은 이적의 매개체이자 신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했다.

“이상한 향기를 풍기고 오색구름이 집을 덮으며 남쪽 못의 고기와 용은 기뻐서 춤추어 날뛰니 나라 사람들이 모여들어 구경하는데 전에 없던 일이라 탄복을 하였다.” (삼국유사, 제4 탑상)

“사천왕사 오방신의 활줄이 끊어지고 벽에 그려진 개가 밖으로 튀어나와 마당을 뛰어다니더니 다시 벽 속으로 들어갔다.” (삼국유사, 제2 기이)

이적의 목적이 무엇이든, 그것은 실제 세상에 나타날 수 있고 꿈의 차원에서 나타날 수도 있었다. 평행 현실이 깃들여 있는 꿈 속에서, 인간들의 세상은 귀신과 죽은 자들의 세상인 저승과 접촉하게 된다. 꿈은, 단순히 정신이 만들어낸 상상적 산물이거나, - 프로이트가 믿었듯 - 우리 정신의 무의식만을 보여준다고 인식되지 않았으며, 그와 반대로 또 다른 현실이 출현하는 장소, 그리고 인간을 신, 혹은 저승과 교통하게 해 주는 통로로 여겼다. 이와 유사한 개념은 고대 그리스에서도 확인되는데, 제사가 거행되는 동안 신도들은 꿈으로 인도되었다. 죽은 자의 영혼이 찾아오는 곳이 바로 그 꿈 속이었기 때문이다.

“왕이 꿈에 머리에 썼던 두건을 벗고 흰 것을 쓰고 손에 12현금을 잡고 천관사 우물 속으로 들어갔다. 꿈을 깨어 사람을 시켜 짐을 쳤더니 잠쟁이가 말하기를 ‘두건을 벗는 것은 관직에서 쫓겨날 조짐이요, 12현금을 잡은 것은 칼을 쓸 조짐이요, 우물에 들어간 것은 옥에 들어갈 조짐이외다’하였다.” (삼국유사, 제2 기이)

“갑자기 꿈에 7-8명의 귀신이 나타나 손에는 오랏줄과 칼을 잡고 와서 말하기를 ‘네가 큰 죄를 지었으므로 목을 베어 죽일 터이다’하였다. 그는 형벌을 받는다 하여 올라가 소스라쳐 깨니 몸살로 병이 나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사잇길로 도주하다가 그 병이 낫지를 않고 나뭇목을 건너다 말고 죽었다.” (삼국유사, 제2 기이)

예지몽은 모호할 때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하는데, 이런 예지몽을 꾸 사람은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예지몽은 때로는 훈계를 위한 것이고, 때로는 앞으로 닥칠 기이한 불운에 대한 사전 경고이기도 하다. 또, 한 사람의 개인에 국한된 것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연관될 수도 있다. “꿈을 깨어 서로 꿈 이야기를 하였더니 두 사람의 꿈이 조금도 틀림없이 같았다.” (삼국유사, 제4, 탑상). 어떠한 경우에는 마치 무형의 교환품이 된 것처럼 물물교환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처음에 문희의 언니되는 보희가 꿈에 서악에 올라가 오줌을 누었더니 오줌이 서울 안에 가득 찼었다. 아침에 동생을 데리고 꿈 이야기를 했더니 문희가 듣고 말하기를 “내가 그 꿈을 사겠소” 하니 언니가 말하기를 “무슨 물건을 주겠니”라고 하였다. 문희가 “비단치마에 팔면 어떻겠소?” 하니,” (삼국유사, 제2 기이)

귀신

귀신들은 꿈 속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 세상에도 모습을 드러낸다. 한자어 ‘귀신’은 오늘날의 한국어에서 원래의 의미보다 폭이 넓어져 혼령들을 가리키기 위해서도 사용되고 있다. 단어 자체가 신의 씨앗인 神과 악령의 씨앗인 鬼를 모두 품고 있다.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두 개의 영혼인 혼백魂魄과 마찬가지로). 놀라운 것은, 고대 그리스인들도 귀신을 신적인 영역과 악마의 영역 사이의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때로는 신(theoi), 때로는 악령(daimones)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이다. 고대에는 신과 악마, 이 두 용어가 본래 유의어였기 때문에 심지어는 호메로스도 올림푸스의 똑같은 신들을 묘사하는데 있어서 ‘daimones’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했다. 본래 이 두 가지를 윤리적 본성의 차이에 따라 분류했던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신들에게 각각의 개인사가 있었고 개성이 있었다는 사실이 이유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를 통해 이를 정의하고 구분한 것이다. 반면 악령들은 종종 이름이나 시간성조차 없는 형체들에 불과했다. 한반도에서나 그리스에서나, 귀신이 될 수 있는 후보자들은 때 이른 죽음을 맞이한

이들로서, 어린 시절이나 혼인을 올리기 전에 목숨을 잃은 이들, 즉 폭력적인 죽음의 희생자였다. 더 정확하게는 자신의 삶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거나, 부당한 죽음을 맞이했거나, 살아있을 때 치열하게 구현하고자 했던 계획을 이루지 못하고 죽은 모든 이들이었다. 여기에 응당 받아야 할 장례 없이 죽은 이들도 더해졌다. 평범한 사람들의 귀신일 수도 있고, 왕이나 영웅의 귀신일 수도 있었다. 예를 들어 김유신의 사례에서는, 귀신들이 자신의 백성을 수호하기 위해 이승으로 돌아온다.

“돌연히 이상한 군사들이 와서 돕는데 모두들 대잇사귀를 귀에 꽂고 이편 군사들과 힘을 아울러 적을 쳐서 깨뜨렸다. 적군이 물러간 후 그들은 어디로 갔는지 알 바 없고 다만 대잇사귀들이 미추의 왕릉 앞에 쌓여 있음을 보고야 비로소 선대임금의 음덕의 공로인 것을 알게 되었다.” (삼국유사, 제2 기이)

일반적으로 귀신들은 이승에 오래 머물지 않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더 길게 머물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삼국유사는 굴 안에 2천 년 이상을 머물렀던 한 신령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삼국유사, 제4 탑상). 그 밖에도 사람들 앞에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귀신들도 있지만, 또 알아볼 수 있는 형체가 없이 나타나는 신령들도 있다.

“신의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니 신이 말하기를 ‘법사가 만약 내 형체를 보려고 하거든 밝은 아침에 동쪽 하늘 짙을 바라보라’하였다.” (삼국유사, 제 5 의해)

신령들은 꿈이나 현실 속에서 나타난다. 하지만 때로는 자발적으로 나타나기 보다는 보호를 청하거나 미래에 대한 예언을 듣고자 하는 이로 인해 소환될 수도 있다.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예언을 끌어내었던 일종의 마법사인 주술사에게 이러한 임무가 맡겨졌다. 그리스 테스프로티아 지역에는 가장 유명한 네크로만테이아nekromanteia 중 하나로 그리스인들이 죽은 자들을 소환하려 가던 성지가 있다. 삼국유사에서 오늘날이라면 강령술이라고 불렀을 법한 상황에 대한 언급을 보게 된다. 고대의 한반도인들도, 고대 그리스 주술사들이 하던 것과 유사한 제사를 지내기 위해 제단을 세웠던 것이다

“사람의 힘으로써는 미치지 못할 것이요, 오직 신술으로써만 구원할 수 있을 것이외다”하고는 곧 성부산에 제단을 설치하고 신술을 청했더니 갑자기 큰 독만한 불빛이 번쩍거리면서 제단 위로부터 나와 별처럼 날아서 북쪽으로 갔다.” (삼국유사, 제2 기이)

그리고 삼국지에서 묘사하고 있는 ‘소도’는 서양에서 귀신들의 성지였던 네크로만테이아와 유사한 곳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귀신을 믿어서 각 마을마다 천신들에게 제사를 올리는 사람을 하나씩 뽑아 이를 천군이라고 부른다. 또한 그쪽의 여러 왕국에는 분리된 마을이 있는데 이를 ‘소도’라고 부른다. 거기에서는 나무 위에 종과 북을 달고 신들을 받든다”. (삼국지, 30권, 동이전, 한전)

모든 귀신들이 동일한 본성과 특징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삼국유사를 읽으면 수많은 귀신들과 마주치게 되는데, 일부는 이름도 없이 귀신의 무리에 속할 따름이며, 일부는 정확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나 영웅의 영혼일 수도 있으며, 남자 귀신일 수도 여자 귀신일 수도 있다.

“웬 여자 둘이 나타나 유신을 따라왔다. 골화천에 와서 유숙을 하는데 또 한 여자가 홀연히 왔었다. 유신공은 세 처녀들을 데리고 좋아서 이야기를 할 때에 처녀들이 맛있는 과자를 대접하니 유신이 이것을 받아먹으면서 서로 속을 주게 되고 그만 통사정을 하였다. 처녀들이 고하기를 “당신이 하는 말씀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바라옵건대 당신은 백석을 잠시 따돌리시고 함께 숲속으로 들어가시면 다시 사귄 곡절이 있습니다”하였다. 이래서 그들과 함께 숲속으로 들어갔더니 처녀들은 금방 신령의 모습으로 변하여 나타나면서 말하기를 “우리들은 나라를 보위하는 나뉼, 혈레, 골화 등 세 곳 신령이외다. 지금 적국 사람이 당신을 유인하는데 당신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길을 가니 우리는 당신을 만류하고자 이곳까지 왔습니다”하고는 말을 마치자 사라졌다.” (삼국유사, 제2 기이)

이 세 여신령들은 도움을 주려 한 선한 신령이다. 그 밖에 하느님이 인간에게 말을 전하기 위해 보내는 심부름꾼의 역할을 하는 신령인 천사天使도 있다. “그가 즉위한 첫해에 천사가 대궐 마당에 내려와서 왕에게 말하기를 “하느님이 나를 시켜 옥띠를 전해 주노라” 하니 왕이 친히 무릎을 꿇고 받았다. 이려고 난 후에 그 천사는 하늘로 올라갔다.” (삼국유사, 제1 기이). 하지만 삼국유사에서 마주치는 많은 귀신들이 이와는 반대로 사악한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 중 일부는 피와 성에 굶주려 있고, 복수심과 원한에 사로잡혀 있다. 인간 사이에 전염병과 기근, 내전을 가져온다. 타인들의 불행을 즐기며 자신의 것이 아닌 식량과 여인을 차지한다.

“그는 매양 큰귀신 하나가 작은귀신을 데리고 와서 집 안에 있는 반찬이란 반찬은 모두 다 먹으며 무당이 와서 제사를 지내면 때를 지어 모여들어 저마다 욕을 보이곤 하였다. 양도가 이를 물리치고 싶었으나 입으로 말을 할 수 없었다. 그의 아버지가 법류사에서 중 무영씨를 청해다가 경을 읽혔더니 큰귀신이 작은귀신을 시켜 쇠망치로 중의 머리를 때려 땅에 거꾸러뜨려 피를 토하고 죽었다. 며칠 지나서 심부름꾼을 보내어 밀본을 청하였더니 심부름꾼이 돌아와 말하기를 밀본법사가 내 청을 받고 곧 올 것임이라고 하니 여러 귀신들이 듣고 모두 실색을 하였다. 작은 귀신이 말하기를 법사가 온다면 이롭지 못할 것이니 피하는 것이 좋지 않으리까? 하니 큰귀신이 경멸히 여기면서 태연스럽게 말하기를 무슨 걱정이 있으랴 하였다. 조금 뒤에 사방의 힘센 귀신들이 모두 쇠갑옷에는 긴창 들고 와서 못 귀신을 잡아 묶어가지고 갔다. 그 다음에는 수 없는 천신들이 둘러서서 기다렸다. 조금 지나 밀본이 이르러 경문을 펼 사이도 없이 그의 병은 곧 나아 말이 통하고 몸이 풀려 사건 이야기를 자세히 하였다.” (삼국유사, 제6 신주).

“그의 아내가 너무도 고왔기 때문에 역병귀신이 탐을 내어 사람으로 변하여 밤이면 그 집에 가서 몰래 데리고 갔다. 차용이 밤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와서 자리 속에 두 사람이 누운 것을 보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그만 물러나왔다.” (삼국유사, 제2 기이)

고대 세계에서는 이런 귀신들의 분노가 인간을 덮치는 것을 막기 위해 귀신을 이해하고 제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 질병과 전염병은 귀신의 탓인 것으로 여겨졌으며 전쟁에서의 승리와 수확의 풍성함도 그들에게 달려있었다. - 때문에 권력을 잡은 최초의 군주들이 귀신들의 파괴력을 제어할 수 있는 샤먼이기도 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신라에서 왕을 거서간이라고 불렀으니 진 땅 마로는 왕이란 말이며 혹은 귀인을 부르는 칭호라고도 한다. 혹은 차차웅 또는 자충이라고도 하는데 김대문은 말하기를 ‘차차웅은 우리말로 무당을 이룸이다. 세상 사람들이 무당으로써 귀신을 섬기고 제사를 받들므로 이를 존경하다가 마침내 높은 어른을 자충이라 하였으며 혹은 이사금이라고도 하였으니 잇끔을 두고 하는 말이다.’ (삼국유사, 제1 기이)

샤먼과 불교의 관습 중에는 때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어두운 존재들을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구마의식도 있었다.

“그 부근에 가라국이 있었다. 옛날에 하늘에서 알이 바닷가로 내려와 사람이 되어 나라를

다스렸다. 바로 수로왕이다. 당시 나라 안에 옥지가 있었는데 그 연못에는 독룡이 살고 있었다. 만어산의 다섯 나찰녀가 독룡과 서로 사귀어 통했다. 그 때문에 때로 번개와 비를 내려 4년 동안 곡식이 익지 않았다. 왕은 주술로 이것을 풀려고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부처께 경배하며 청하여 설법하니 나찰녀가 5계를 받았다. 그 후에 재해가 사라졌다. 이로 인해 동해의 용이 골짜기의 바위로 변했다.” (삼국유사, 제4 탑상)

“항가를 숭상한지 오래되었는데 대개 시가와 송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천지와 귀신을 감동시킨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삼국유사, 제7 감통)

“‘가뜩한 임금의 영혼이 낳은 아들,
비행량이 있던 방이 여기라오.
날고 뛰어 쏘대는 못귀신들아,
이 곳에 머물지 못할지라,
나라 풍속에 이 글을 써서 붙여 귀신을 쫓는다.” (삼국유사, 제1 기이)

괴물

라틴어 ‘monstrum’의 어원은 동사 ‘monere’에 있는데, 이는 ‘경고하다’, ‘상기시키다’라는 의미로서, 신비하고 특별하며 신의 ‘경고’와 초자연적 전조를 연상시키는 무언가의 등장을 암시한다. 이것 또한 어느 모로 보나 징조지만 뭔가 괴기스럽고 불안하게 만드는 본성을 지녔다. 한자어 괴물怪物의 어원이 바로 이러한 의미를 지닌다. 무언가 괴상하고 이상한 것을 가리키며, 정상(正)으로부터 엇나간 것이다. 2세기 경의 문법학자 페스투스Festus는 ‘괴물’이란 다리가 달린 뱀, 날개가 넷인 새, 머리가 둘 달린 사람처럼 만물의 자연 질서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기술했다. 통상적인 것과 다른 만큼, 놀라움과 두려움을 함께 선사한다. 귀신들과 마찬가지로 괴물들도 인간의 노정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땅에 살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앞에 다시 나타나 인간들 사이에 경악과 혼란을 일으킨다. 상상 속 생물이나 도달할 수 없는 아주 먼 곳에 산다고 생각되는 생물로 승화시킴으로써 인간의 본능적인 두려움을 형상화한 것이 바로 이런 괴물들이다. 괴물의 첫 번째 형태는 인간과 동물, 아니면 서로 다른 동물들이 서로 결합한 형태로서, 기이한 탄생이나 변태metamorphosis의 결과이다. 고대 지중해 전승은 이런 류의 괴물에 대한 많은 예를 갖고있다. 시노세팔러스는 개의 머리를 한 사람이며

이들은 말을 하는 대신 개처럼 짖는다. 만티코어는 인간의 머리를 하고 있으나 몸은 사자, 꼬리는 전갈이다. 켄타우로스는 반인반마로서 인간문명에 반하는 야만성의 상징이다. 그리고 유니콘과 그리폰은 고대인들의 상상 속에서 탄생한 생물이다. 고구려 무덤 내부의 벽화들도 인간과 짐승의 사이에 있는, 이런 류의 다양한 생물들로 가득하다. 인간의 머리를 단 새와 네발 짐승들, 인간형의 머리를 두 개 달고 있는 괴물, 날개 달린 물고기, 다리가 셋 달린 까마귀. 혼성 괴물들은 그림뿐만 아니라 고전 문헌에도 자주 등장하며 물론 삼국유사에서도 등장한다. 게다가 삼국유사의 시작을 알리는 단군신화 자체가 여인으로 변모한 곰에 관해 이야기 하고 있으므로, 한국 문학 전체를 통틀어 가장 권위 있는 변태의 사례를 계승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곰은 계집의 몸이 되고...” (삼국유사, 제1 기이)

이런 종류의 사례는 삼국유사 내에 여러 번 나타난다. 범으로 변하는 사람들, 닭의 모습으로 태어난 처녀, 승려로 변신한 여우 등...

“범이 처녀로 변하여 반가이 웃었다.”

“이 날 사랑리 알영우물에서 계룡이 나타나서 왼쪽 옆구리로부터 계집아이를 낳으니 자색이 뛰어나게 고왔다. 그러나 입술이 닭의 입부리 같은지라 월성 북쪽 냇물에 가서 목욕을 시켰더니 그 입부리가 통겨져 떨어졌다.” (삼국유사, 제1 기이)

“이 때에 거타가 활을 쏘아 맞추니 그 젊은 중은 즉시로 늙은 여우로 화하여 땅에 떨어져 죽었다.” (삼국유사, 제2 기이)

집착하건데 이런 혼성 동물의 모습은 황하강 이남의 도시문명에 확산되어 있는 도상보다는, 북방민족과 유목민족 내에 자리 잡은 도상들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혼성 동물이라는 것은 괴물과 같은 형태를 지녔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뭔가 다른, 비정상적이고 비범하며 괴물과 같은 특성을 자체적으로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괴물의 또 다른 형태는 비정상적인 크기이다. 이것은 정상적인 기준에 비해서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크거나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도하게 큰 생물이 발견되는 사건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기이한 일이었기에 후세인들이 이를 인용하기도 했다.

“왕이 처음으로 즉위한 용삭 신유에 사비수 남쪽 바다에 여자의 시체가 있었는데 몸 길이가 73자요, 발 길이가 6자요, 생식기 길이가 석 자나 되었다. 혹은 말하기를 몸 길이가 18자요.” (삼국유사, 제2 기이)

“큰 구렁이가 나무 아래 포아리를 들고 있었다.” (삼국유사, 제5 의해)

둔중하고 흉측한 엄청난 크기의 몸체는, 신체의 아름다움에 도덕적 진실성과 미덕을 통합시키던 당시의 미적 관념과 대비를 이루었다. 추함보다 더 부적절한 형태는 바로 기형이었는데 이것은 익숙해져 있는 미적 기준으로부터 인간을 멀어지게 함과 동시에 불안하게 만들었다.

“태종이 처음 즉위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머리는 하나요, 몸뚱이는 둘이요, 발이 여덟인 뱀 돼지를 바쳤다.” (삼국유사, 제2 기이)

삼국유사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괴물 같은’ 생물은 바로 용으로서, 창조신화 뿐만 아니라 삼국의 여러 군주들이 재위하는 기간에도 나타난다. 삼국시대의 출처들에 의하면 용은 군주의 죽음이나 음모를 알리는 역할을 했다. 그들의 출현이 자연재앙을 동반하는 경우도 많았다. 여러 문화권에서 보물, 성유물, 성스러운 건축물의 수호자로서 뱀의 모습을 한 생물을 상상했는데, 예를 들어 텔피 신전 앞과 헤스페리데스의 정원 앞에서 황금양모를 지키는 것도 용이었다.

“61년 만에 왕이 하늘로 올라갔는데 이레 뒤에 유해가 땅에 흩어져 떨어졌으며 왕후도 역시 죽었다고 한다. 나라 사람들이 함장을 하려고 했더니 큰 뱀이 나와서 못하도록 방해를 하므로 다섯 동강이로 난 몸뚱이를 다섯 능에 각각 장사하고 역시 이름을 사룡이라 하였다.” (삼국유사, 제1 기이).

“머칠을 지나 두번째 도적떼가 왔더니 이번은 길이 30여 척 되는 큰 뱀 한 마리가 눈을 번갯 불처럼 번쩍이면서 사당집 옆으로부터 나와 8-9인을 물어죽였다.” (삼국유사, 제 2 기이)

용은 그 자체로 거대한 괴물이라는 생각과 함께 기이한 것이라는 개념도 담고 있다.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 용은, 어떠한 경우에는 죽은 생물에 생명을 되돌려주는 것과 같은 초자연적인 힘도

보유하고 있었다.

“배나무가 꺾어지고 시들매 용이 어루만지니 곧 살아났다.” (삼국유사, 제5 의해)

황제나 왕의 최고 권위의 상징인 용은 삼국유사 내에서는 선한 존재로 더 자주 등장하는데, 왕이나 영웅이 땅에서의 삶이 다 한 후에 용으로 환생하여 왕국을 수호함으로써 자신의 임무를 지속하는 경우도 있다.

“왕이 평상시에 지의법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죽은 뒤에는 원컨대 나라를 수호하는 큰 용이 되겠다”고 하였다.” (삼국유사, 제 2 기이)

“선대 임금의 지금 바다용이 되어 삼한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삼국유사, 제2 기이)

물 아래로 들어가고 나오거나 땅 아래 숨고, 겨울에는 사라졌다가 여름에 다시 나타나며 변화를 맞이하는 뱀은 재생과 풍요의 상징이 되었다. 제주도에서 뱀은 가정과 마을의 수호신인 사신蛇神으로 추앙 받는다. 용은 날아서 등장하거나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지만 물이나 해양과 연계되는 빈도도 잦은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저 세상을 가리키기도 한다. 중세의 상상력과 문화에 관해 연구하는 저명한 학자 미셸 파스투르Michel Pastoureau가 썼듯이, ‘수중 세계와 지옥의 세계는 동일한 본성을 지니고 있다. 양 쪽 모두에서 숨이 막히고, 죽음을 맞이하며, 죽음 후에도 끔찍스러운 고난과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그것은 마치 이승의 네거티브 사진과도 같아서 셀 수 없이 많은 거주자가 있지만 모든 것이 꺼져있다.’

결론

본 논문에서는 고대 한반도인들의 정신세계를 탐구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삼국유사의 일부 구절을 분석함으로써, 징조와 귀신과 괴물의 본성을 재구성해 보고자 하였다. 고대에는 약재치료와 과학의 한계로 인해 불확실성과 의심이 차지하는 공간이 컸으며 이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상상력으로 채워지고 종교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상당수의 신화와 고대 설화는 민족의 정체성은 반영시키면서도 종교성을 제거한 오락적인 이야기로 탈바꿈하기도 했다. 이적과 귀신과 괴물은 역사의 페이지를 계속해서 가득 채우는데, 그 이유는 아마 이에라노Ieranò의 말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신화적 허구의 베일 뒤에는 우리 삶의 의미가 감추어져 있다. 이야기 속에 요정과 괴물이 등장하는 신화라 하더라도, 그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표현할 수 없었던 무언가 깊이있는 것을 우리에게 직관할 수 있게 한다'. 고대인들의 흔적과 상상의 지형도 속 신화에 등장하는 다양한 귀신과 괴물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빛 아래에서 세상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우주의 비밀스러운 짜임새를 잠시나마 엿볼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David Wengrow: 2013. *The Origins of Monsters: Image and Cognition in the First Age of Mechanical Reproduc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Ieranò G.: 2017. *Demoni, mostri e prodigi*. Sonzogno: Venezia.
- Ir'yŏn (traduzione a cura del Kojŏn yŏn'gusil): 1281. *Samguk Yusa*. Sinsŏwŏn: Seoul.
- O Sejŏng: 2012. "Han'guk sinhwa-e nat'anan tongmurdŭr-e taehan sangsangnyŏk", in *Sihak-kwa ŏn'ŏhak'oe* (a cura di), *Sihak-kwa ŏn'ŏhak*, n. 22.
- Rita Paris et al. (a cura di): 2013. *Mostri: creature fantastiche della paura e del mito*. Electa. Mondadori: Milano.
- Rudolf Wittkower: 1977. *Allegory and the Migration of Symbols*. Thames and Hudson: New York.
- Stefan Cunha Ujvari: 2012. *Storia delle Epidemie*. Odoya: Città di Castello.
- Yi Ch'ansu et al.: 2010. *Uri-ege kwisin-ŭn muŏs'inga? Tosŏ ch'ulp'an mosinŭn saramdŭl*: Seoul.